



## 코로나19 유증상 학생 발생 시 지침에 대한 안내

안녕하십니까?

최근 발생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확산에 따라 가정에서도 자녀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대한 우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. 본교는 학교에서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, 특히 **코로나19 유증상 발생 학생과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**에 대해 재차 안내드리고자 합니다.

### - 코로나19 유증상 호소 학생에 대한 지침 -

교육부와 방역당국(질병관리본부)의 지침에 따라 단체생활 중 코로나19 유증상 호소 학생은 반드시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·검사를 받아야 하며,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와도 증상이 완치될 때까지 정해진 기간 동안 가정에서 자율보호 후 등교해야 합니다.

※ 코로나19 주요 의심증상 (발열, 기침, 인후통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미각·후각 소실 또는 폐렴 등) 및 그 외 (가래, 콧물, 코막힘, 오심, 구토, 설사 등) 다양한 증상 발생 시

- ① 가정에서 증상 발견 시 : 선별진료소(덕진선별진료소, 대자인병원·전주병원·예수병원 선별진료소) 방문하여 진료·검사 실시
- ② 학교에서 증상 발견 시 :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동행하여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·검사 실시

### ※ 가정에서 자율보호 후 등교일 안내

검사결과 음성이거나,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완치되면 다음날 등교 가능.

**단,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,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.**

**(예시) 해열제, 감기약 복용 후 7.14.(화) 증상 소실된 경우 > 7.17.(금)부터 등교**

그런데 위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이 일부 있어, 학교 내에서 유증상 학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학교 내 집단감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

※ **코로나19 음성판정 후 증상이 완전에 소멸되지 않았음에도 감기약 등을 먹고 등교하면, 등교 후 같은 반 친구들에게 유증상을 전파하게 됨. 그럴 경우 학교는 지침에 따라 다시 그 학생들을 선별진료소에 보내고 자율보호 해야 하는 악순환이 실제로 교실에서 지속적 발생하고 있음.**

본교에서는 전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지침대로 철저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.

따라서 가정에서도 학생의 코로나19 유증상 학생에 대한 자율보호 후 등교 지침을 꼭 준수하여 학교의 방역활동에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

2020. 7. 14.

전 주 제 일 고 등 학 교 장